



변화하는 미국 통상정책 선제 대응

도, 후속 회의 열고
수출기업 대응 점검
자동차·농식품 등
주력산업 대책 논의
첨단산업 육성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22일 변화하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통상정책 대응' 후속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응반 구성 이후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핵심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국과의 협상으로 양국 간 관세율이 15%로 조정된 상황에서, 도내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 실·국을 비롯해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KOTRA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원본부 등 경제 관련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시행된 금융지원, 판로 확대, 현장소통 등 관세 대응 지원 정책 △자동차부품·조선·농식품 등 주력업종의 대응 상황 △내년도 핵심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급망 다각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러 온 시민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첫날인 22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쿠폰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화와 기업경쟁력 제고, 첨단산업 육성을 내년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수출바우처 확대와 자금 지원과 해외 전시회 참가 확대를 통한 판로 다각화 지원, 업종별 수출역량 강화(미래차 부품 전환 및 대체부품 개발 등)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수출 다각화, 특례보증, 비관세장벽 해소 등 지원책을 도

내 기업들이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책 혜택이 체감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올해 추진해 온 대응반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내년에는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내 기업들이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

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달 15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관세대응 특별 경영안정자금(100억원)과 고금리 대응 거처기간 연장 지원(200억원)은 자금소진 시까지 중소기업 종합 지원 시스템을 (<https://jook.kr>)을 통해 상시 신청받고 있다. /이만호 기자

드론축구 세계로 도약 발판 기원

전북우정청,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기념우표 발행

전북지방우정청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기념해 특별한 기념우표를 발행한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대회 공식 포스터와 로고, 마스코트 디자인을 담아 제작됐다. 단순한 우편 수단을 넘어 세계 최초로 열리는 드론축구 월드컵의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고, 향후 드론축구의 발전을 상징하는 소장 가치 높은 문화 콘텐츠가 될 전망이다.

우표 예약 접수는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6일간 진행된다. 신청은 우정사업본부 온라인 홈페이지(www.koreapost.go.kr/561/index.do)와 전화(동전주우체국 ☎063-240-3844, 3930)로 가능하며, 예약된 우표는 10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최동원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기념우표. (사진=전북지방우정청 제공)

번 기념우표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널리 알리고, 드론축구가 세계로 도약하는 발판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우표에 담아 지역사회 홍보와 우표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을 케어푸드 메카로’

도, 내일 남원 스위트호텔서 '미래농업 전북포럼' 개최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전략 마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미래 농업 전북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개인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을 집중 육성 중인 도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3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박지은 마크로젠 이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인 맞춤 활용 가능성을 다룬다.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시장 동향과 유전자·마이크로바이옴 정보를 토대로 한 개인별 건강관리 및 식단 설계, 질병 예방 솔루션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배민정 한국식품진흥원 기술혁신처장은 케어푸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플

랫폼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국내외 케어푸드 시장 현황과 주요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식품진흥원의 생산·가공·포장 시설과 기술 지원을 활용한 기업별 제품 개발 및 실증 결과를 공유한다.

정도건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전북의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발전 로드맵을 공개한다. 전북이 확보한 대규모 미생물 자원과 전국 최고 수준의 관련 시설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선도기업 3개사 육성, 연관 기업 40개사 확충, 일자리 2,3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총 1,875억원을 투입해 R&D 기반 구축, 기업 전주기 지원 등 3대 전략과 14개 세부 사업을 실행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식품연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대학교 등 산·학·연·병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케어푸드 산업화 추진 방안과 지역 특성을 살린 연계 전략을 검토한다. /이만호 기자

가을철 태풍 대비 도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나섰다

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595곳 대상 주민 대피체계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가 다가올 가을철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도는 산사태 취약지, 급경사지, 침수 우려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9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주민 대피체계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대피 기준과 대피장소 안내 △공무원·소방·경찰 및

‘마을 1대피지원단’ 연락망 공유 △대피 시 제공되는 재난구호미 지원 사항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직접 안내했다.

또한 피해 유형별 취약 시설과 지역을 점검해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 중이다.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784개소를 예찰·점검한 결과, 위험수목 제거 264건, 하천 준설·배수로 정비 96건, 간판 고정·철거 27건 등 총 453건의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미처리된 127건 중 단기 조치가 가능한 54건은 9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73개소는 태풍 이전 긴급 조치를 완료한 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등 대규모 예방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예방 시설 설치 등 근본적인 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국토부, 법원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1심 판결 항소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시스



고창읍성